



변·화·하·는 우리 대학

교육 중심대학의 새로운 모델, 한동대학교

Why not change the world?

경상북도 포항시 외곽에 자리한 한동대학교의 진입로 입구에 세워진 비석에 새겨져 있는 슬로건이다. 지난 1995년에 개교하여 새로운 시대에 세상을 바꿀 인재들을 길러 내고 있는 한동대학교는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교육 중심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교육 중심대학의 새로운 모델, 한동대학교

I. 새로운 대학, 새로운 교육

1. 한동대학교, 세계적인 교육 허브로의 발돋움

지난 2007년 4월, 한동대학교는 유네스코의 개발도상국 지원프로그램인 UNITWIN의 파트너(Hosting University)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8월에는 유엔 산하의 유엔대학 국제교육협력센터(UNUIGE ; 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for Global Education)를 교내에 유치하는 협약을 맺었다. 유엔대학 국제교육협력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유엔 산하기관의 직원들에게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가의 학생들과 정부관료, 비정부기구(NGO)의 인재들을 본국의 지도자로 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엔대학 국제교육협력센터가 설립된다는 것은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방법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 학부교육 위주의 교육 중심대학 필요성 대두

대학졸업생을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인력수요의 대부분은 학사인력에 집중되고 있다. 20세기 말까지 산업사회



그림 1. 한동대학교 전경

에서의 고급인력 수요는 기존 생산 시스템에 투입되어 프로세스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학사 인력들과 연구를 담당하는 석사 이상의 인력으로 나눠졌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주어지는 업무만을 소화해 내는 능력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 새롭게 주어지는 임무들 속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들은 그 비중과 수요가 전체 고급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사 인력을 제대로 교육하는 데 그 자원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교수의 연구실적이나 논문발표 편수, 특히 SCI급 논문을 얼마나 발표했는지가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고, 정부의 국고 지원 역시 대학의 '교육에 대한 필요' 보다는 '연구에 대한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대학과 교수들이 학부생을 잘 가르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재정을 확보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한 대학원 과정이나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미국의 경우, 미소 냉전시대에는 대학의 교육기능보다는 연구기능에 교육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대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학부교육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미국 백악관 과학정책보고서("Science in the National Interest", Science, Vol. 266, Nov. 4, pp.741-3, 1994)에 의하면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대학 학부교육에 중점을 두어, 과학기술 인재의 인력집단(pool)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대학의 연구·교육·봉사의 기능 중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미국의 산업연구협회(Industrial Research Institute)도 대학의 우선순위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교육 중심대학의 모델,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는 개교 시부터 학부 위주의 교육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다져 왔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에 대한 수요를 읽고, 이 시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길러 내기 위해 학부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대학의 핵심역량은 교수, 학생, 직원의 역량과 교육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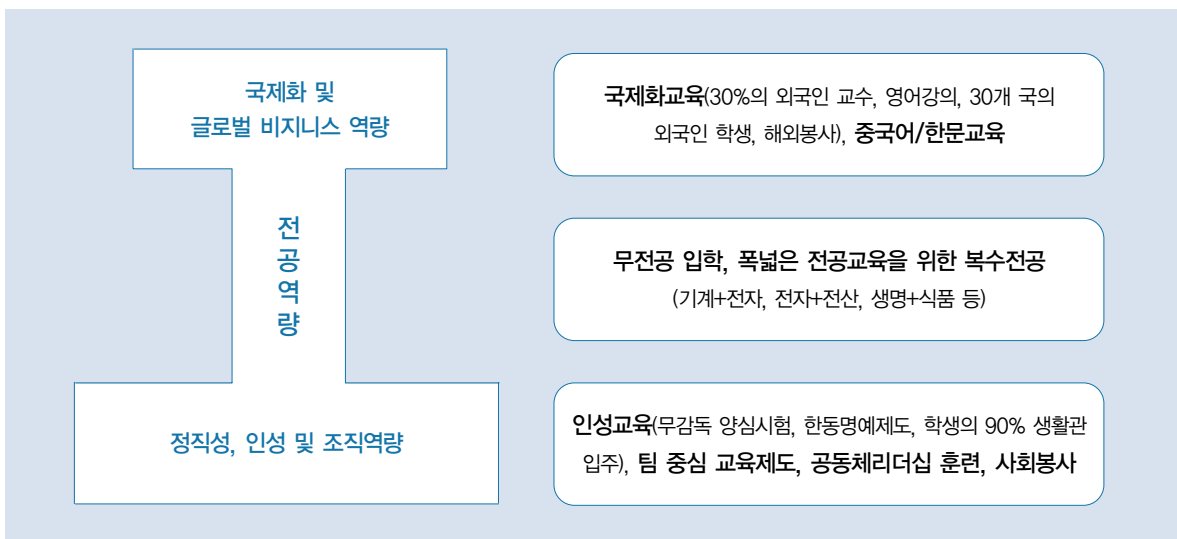


그림 2. 한동대학교의 인재상과 교육

프라로 나눌 수 있다. 교수의 핵심역량은 교수(Teaching) 역량과 연구역량이다. 대학교수의 역량은 대학의 역량이며, 교수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학생의 역량은 교육을 통해 학습능력(전공 및 신지식 습득 능력, 문제해결능력)과 세계적 시민으로서의 교양, 세계관과 인성(인격)을 갖추는 데 있다. 또한, 대학의 핵심역량에는 대학 구성원들의 국제적 언어(Communication)능력, 타 문화의 이해와 적응력을 포함하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제도(학술교류, 산학협력, 복수/연계전공, 전공 선택권 등), 행정 지원체계와 시설(강의, 도서관, 기숙사, 체육, 문화공간)을 포함할 것이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13년 동안 진정한 교육 중심대학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그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해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달려왔다.

II. 한동대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1. 다양한 학문의 유기적인 통합을 통한 학제 간 융합교육 실현

● 전교생의 복수전공 이수

한동대학교의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신입생 전원이 일 년 간 소속되는 기초교양 학부적인 글로벌 리더십 스쿨(Global Leadership School)을 제외한 10개 학부에서 각각 2개씩의 인접학문을 전공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경제학부를 비롯한 일부 학부에서는 100%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도 열려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두 전공을 선택하여 각 33학점씩 이수해야 한다. 다만, 최근의 일부 이공계열 전공에 한해 공학교육인증을 위해 단수전공을 허용하고 있다.

● 타 학부 전공과의 연계전공 허용

복수전공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1990년대 후반에는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학부 안의 두 전공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본인의 소속 학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부의 전공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연계전공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학부 간,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복합적인 영역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정보기술과 벤처사업이 호황을 누리던 2000년에 경영학과 전산과학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금은 인문계열 간 모든 전공을 비롯해 일부 이공계열 전공과 인문계열 간의 연계전공 이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보다 많은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계전공의 범위를 점차 넓혀갈 것이다.

2. 자유로운 전공선택을 통한 학생의 전공선택권 보장

● 모집단위의 광역화(무전공 무학부 입학)

한동대학교는 개교 2년차인 1996년부터 신입생을 학부별로 받지 않고, 무전공/무학부로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 후 첫 1년 동안은 일종의 교양학부 격인 글로벌 리더십 스쿨(Global Leadership School)에 소속되어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기초소양교육을 받는 동시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자유로운 학부 및 전공의 선택과 변경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서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학부를 선택한다. 이 때, 각 학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정원이나 특별한 지원자격이 없어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학부라도 선택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문과 공부를 했던 학생이라도 전산전자공학부에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고, 정규적인 미술공부를 한 경험이 없어도 디자인 공부를 통해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학년 2학기까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 학부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학부변경(전과) 역시 정원이나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학생들이 자신에게 더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자유로운 전공선택권을 보장해 준 결과, 고등학교에서는 이과를 공부했던 학생이 대한민국 디자인 국전에서 3년 연속 입상하는 쾌거를 보여주기도 했다. 학부 및 전공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학생들이 조건 없이 자신의 전공을 택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어진 무시할 수 없는 큰 효과(Social Capital)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소속 학부 전공에 따른 우월의식이나 열등감 없어졌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학제 간 융합이 일어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3.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을 길러 내는 인성교육

21세기의 세상을 바꿀 지도자를 길러 내고자 하는 한동대학교는 학문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학생 한명한명이 정직함을 명예롭게 여기고, 이웃에 봉사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팀 플레이어(team player)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담임교수제 실시

한동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학부 담당교수와는 별도로 1명의 담임교수가 25~30명 정도의 학생들을 맡고 있는 팀에 배정된다. 다양한 학부와 전공을 가진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하나의 '팀'으로 묶여 일년 동안 함께 생활하게 된다. 기숙사 방배정을 비롯해 전교생이 6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체플과 근로의 무 역시 이 팀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에 관련한 문제나 장래의 진로와 관련해서 담임교수와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렇듯 학생의 학업과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담임교수가 멘토가 되어 자주, 그리고 친밀하게 접촉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법을 익히는 사회봉사

'배워서 남 주자!' 이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4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다.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전교생이 사회봉사로 3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학마다 재학생의 15%인 4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국내외 여러 곳으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손에는 전공지식과 기술을, 가슴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담은 학생들은 재학시절 여러 차례의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과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법을 배운다. 즉 남에게 주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한동대학교는 개교 시부터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체 재학생의 90%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학생들은 4년 간의 기숙사생활을 통해 타인과 공존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배우게 된다.

●무감독 양심시험제도 실시

아무리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정직' 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개교 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험은 '무감독 양심시험'으로 치러져서 시험장에는 학생들만 앉아 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책상과 강의실 벽에는 그 흔한 낙서 하나 없다. 학생들이 스스로 정직을 자신의 명예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명예현장을 만들고 지키기를 서약한 문화가 이미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4. 학습능력(Learning Skill) 배양을 위한 기초능력 교육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전공만이 아니다.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방법과 지식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에 있어 균형 잡힌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밀려드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가공해서 지식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감각을 길러주고 있다.

5.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를 키워 내는 교육

●실무영어 교육

한동대학교의 모든 학생은 재학 중 4학기 동안 실무영어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의 영어로 듣고 말하는 데 치중하는 생활영어 수준을 벗어나, 영어로 사고하고, 영어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세계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어 원강과 100%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제공

한동대학교에서는 전공강의의 약 30%가 영어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Information Technology(IT)', 'Global Management(GM)', 'U.S. & International Law(UIL)' 등과 같이 전공의 전 과정을 100% 영어로만 수업하는 전공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다양한 문화권의 세계민이 어울리는 대학

●다양한 문화권의 세계민이 어울리는 대학

한동대학교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우간다, 르완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온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 학생들은 이들과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문화에 대해 익히고 진정한 지구촌 속의 '세계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Ⅲ. 맺는말

미국에서는 대학을 평가할 때 학부 중심의 교육 중심대학과 석·박사를 포함한 연구 중심대학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 중 다트머스(Dartmouth)나 윌리엄스(Williams), 앰허스트(Amherst)를 비롯해 규모는 작지만 학부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대학이 많다. 이들 대학의 공통점은 대학원보다는 학부를 중심으로 모든 교육과정과 학교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학원이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해도 학부의 규모에 비하면 그 비중이 미미하지만, 대학경쟁력은 탁월하다고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학교가 배출해 낸 인재들은 미국 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학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특정 학문이나 학과에 의존하거나, 연구 중심의 대학원에 대한 비중을 두기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학사인력을 길러 낼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

한동대학교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급속한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라 21세기를 이끌어 갈 정직한 지도자와 섬김이를 교육하는 대학이다. 또한, '학부 중심 혹은 교육 중심대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이 땅의 교육 현실에서 학부생을 잘 길러 내는 학교로서 학부교육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는 대학이다. 한동대학교는 교육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에 대학의 역할 및 대안과 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대학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